

# 부산도시철도 코로나 '철통 방역'으로 시민 이동권 사수 모든 역사 하루 4회 방역...전동차는 월평균 6회 소독



부산교통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부터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모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안전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계단 난간, 출입구 손잡이 등 고객 접촉이 많은 부분에 하루 6회 살균 소독을 진행하고, 전동차의 경우 월평균 4회 방역을 하고 있다. 역무원, 기관사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급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고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과 감염 예방 생활수칙을 홍보해왔다.

24시간 게시판,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코로나19 안내 수칙을 안내하고 열차 내 모니터와 승차장 행선 안내기, 안내방송 등을 통해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역과 열차의 방역 활동을 최고 단계로 유지하고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중교통 수요가 많이 감소해 하루 평균 4억원 수준으로 수익이 줄어들자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해 급격한 재무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공기업으로써 지난 3월부터 생명나눔 헌혈 운동과 시산하 공공기관 공동 성금전달, 코로나로 지친 부산 시민을 위한 힐링 메시지 열차 운영 등 지역 대표 기업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예년보다 승객이 50%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도시철도는 감편 없이 정상 운행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도 도시철도 이용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시철도 하차 후 손을 꼭 씻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우 리 는 함 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부산교통공사가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